



▲김달진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장.

우공이산(愚公移山), 한국현대미술의 기록자

김달진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장

주변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다. 화가를 화쟁이라 비하하며 자녀가 미술대학에 진학하겠다고 하면 때려서라도 말리던 시기였다. 그런 시절 그는 화가도 아닌 미술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에 자신의 열정을 쏟았다. 세상에는 목표를 가진 '수집가' 사람들 중에는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김관장은 그 수집취미가 하나의 아키비스트란 직업으로 전환시켜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40년의 시간이 지난 그는 지금 어엿한 사립박물관의 관장이며, 한국에서 최대부수를 자랑하는 미술잡지 <서울아트가이드>의 편집인이 되었다. 바로 김달진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장의 이야기다. 주변에서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던 김달진 관장의 미술자료 수집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수집은 연구, 전시와 출판으로 확장되었고 지금은 그 일을 통해 1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사장님'이 되었다. 또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아 중학교 도덕교과서 2(금성출판사, 2013)에 '자신의 취미를 직업으로 만들다'란 제목으로 수록되었으며, AI 알파고와의 대결로 유명해진 이세돌과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 중 하나인 중앙일보 유민문화재단에서 수여하는

'2016 흥진기 창조인상'을 함께 수상했다. 김달진은 이 모든 원동력은 자신이 즐겨워하는 것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숨은 가치를 찾아내고, 그걸 다시 사회에 의미 있는 것으로 환원하는 것을 통해 왔다고 말한다.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두려워한다. 김달진은 고등학생 시절에 현장에서 활동 중이던 미술평론가, 교수들에게 미술자료 수집을 직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편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대부분의 편지는 답이 없었지만 이후 편지를 받았던 사람 중 한명이었던 홍익대학교 박물관장 시절의 이경성에게 찾아오라는 답신이 왔고, 김달진은 자신이 그간 여성잡지에서 스크랩해 모은 서양미술명화 스크랩북 10권을 들고 찾아가 만나는 열정을 보였다. 김달진은 <월간 전시계> 근무 중 언론통폐합으로 직장을 잃고 1981년 이경성이 국립현대미술관장으로 임명되면서 임시직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일을 시작하여 15년간 자료실에서 근무하게 된다. 희망이란 단어가 막막한 것만은 아니다. 김달진은 '무엇을'이 정해진 시점부터 '어떻게'를 고민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변인들로부터

더 지혜를 구했고, 도전했다. 다른 사람들이 찾지 못한 가치를 발견하라. 그는 '금요일의 사나이'라는 별명이 있었을 만큼 매주 금요일에는 미술전시가 많이 열리는 인사동 거리를 다니면서 전시소개 목적으로 만들어진 팸플릿, 도록, 포스터 등의 미술자료를 수집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일회용의 그림엽서, 안내장 정도로 보였지만 김달진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수집한 미술자료를 통해 주관적이고 취향에 따라 평가받는 미술을 보다 객관적으로 사회에 소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는 자료를 통한 통계, 연표, 현상 등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여 기고한 많은 글들은 미술계 뉴스메이커로 성장했다. 그의 저서 1995년 '바로보는 한국의 현대미술'의 집필방식을 통해 알 수 있다. 미술사조와 미학이론으로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닌 미술자료를 정리, 연구해서 얻은 실질적인 수치와 객관적인 정보들을 기반으로 글을 썼다. 이로 인해 실제적인 수치와 정보에 목말라 있던 종합지 미술기자들에게 김달진은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 꼭 한번 전화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글 중에는 1992년 "한중수교 새바람: 한중 현대미술교류사"도 발표했다. 그렇다고 김달진이 승승장구한 것만은 아니었다. 사회적으로는 자리를 잡아갔지만 직장에서의 대우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15년간 근무하였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급은 없었고, 별정직 7급에서 기능직 10등급으로 임금은 오히려 삭감되었다.

하나님께 하듯 사람에게 하라. 가족부양이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정들었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떠나 김달진은 한국의 대표 화랑 중 하나인 가나아트에 입사했다. 가나미술문화연구소 자료실장으로 근무하며, 국공립기관과는 또 다른 사립기관의 근무환경 속에 놓였다. 5년 10개월 후 뒤 그는 퇴직을 권유받고 가나아트를 떠나 무가잡지인 <월간 서울아트가이드>를 만들어 독립하며 김달진미술연구소를 개소하였다. 환경 변화와 그 적응과정 속에서 김달진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을 통해 사회를 이롭게 한다는 보람이 큰 몫을 차지한다. 박물관 소장품 중에는 300년된 1717년인 청나라 강희정유년에 나온 "서경대전/ 황제비교정"도 가지고 있다. 오늘도 금년 박물관의 주요 기획전인 <20세기 '한국화'의 역사전> 준비를 지휘하고 있다.

- 김달진 약력**
- 1955년 충북 옥천생.
 - 1978.~1981. 월간전시계,
 - 1981.~1996.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
 - 1996.~2001. 가나아트센터 자료실장,
 - 2001~현재 김달진미술연구소장,
 - 2008~현재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관장,
 - 2012~현재 한국아트아카이브 협회장.
 - 2010 대한민국문화예술상(대통령),
 - 2014 한국미술저작·출판상,
 - 2016 흥진기 창조인상 수상



▲김달진박물관.



▲김달진박물관 전시장.